

코로나19 대응 유공 대통령 표창 영예

기관 표창 대상-풍림파마텍 · 개인 표창-전북대병원 이창섭 교수 · 남원의료원 오진규 관리부장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도내 단체와 개인이 코로나19 대응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해 격려했던 (주)풍림파마텍과 전북대병원 감염내과 과장인 이창섭 교수, 남원의료원 오진규 관리부장이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기관 표창 대상은 받은 (주)풍림파마텍은 백신 잔량을 최소화하는 주사기 개발로 널리 알려졌다. 풍림파마텍이 개발한 최소주사잔량(LDS) 주

사기는 기존 주사기 사용에서 버려지는 백신 약액 20%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효율 최대의 주사기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전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기존 주사기를 활용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백신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어 K-방역의 선봉장으로 우뚝 섰다.

또한, 개인 대통령 표창자는 이창섭 교수와 오진규 부장 2명이 선정됐다. 전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과장으로 재직 중인 이창섭 교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도내 확진자와 격리자 치료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교수는 전북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긴급대응팀의 팀장으로 접종 후 신고된 중증 이상 반응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중추적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받았다.

남원의료원 오진규 관리부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 확보 및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구·경북 감염병 대응행 시 병원 내

의료진 파견을 적극 지원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공헌한 점이 인정받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정부포상을 수상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심각 상황에서 의료인력은 물론 해외 유입차단, 방역대응, 사회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더 많은 숨은 공로자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제4대 원장에 나석훈 전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이 13일 군산대학교 총장실에서 객병선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했다.

“군산 고용위기 타개 위해 선봉에 설 것”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제4대 나석훈 원장 취임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제4대 원장에 나석훈(61) 전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나석훈 신임 원장은 13일 군산대학교 총장실에서 객병선 이사장(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이사장)과 산학융합원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해 2024년 4월 12일까지 3년 임기를 시작했다.

나 원장은 그간 전북도에서 일자리와 산업부문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일자리·산업분야 전문가로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사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나석훈 원장은 “산학융합원으로서 대학과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고급인력양성과 일자리창출, 전북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고용위기 타개를 위해 선봉에 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신임 원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해성고를 졸업하고 전주대 경영학과 및 고려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1년 군산시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재정기획관, 남원 부시장,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유호상 기자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1기 모집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농생명산업 창업 활성화를 성공기업 확산을 위한 2021년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1기 참가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현재 모집 중인 창업 초기 대상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단계, 농생명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환경변화 대응과 생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 프로그램과 기업수요에 맞춘 실전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아울러, 창업 교육, 멘토링,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및 기획 중인 사업아이템의 계획 평가 등 실질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단계별 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감 있는 교육과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참여자 전원이 창업사업계획서, R&D 기획서, 사업 제안서 등을 작성, 평가와 보안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농식품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를 대상 맞춤형 실전 교육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창업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건설현장 사고 예방 · 안전관리 개선방안 논의

호남지사 안전협의체 간담회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지사장 서영운)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성진)은 호남권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호남지사 안전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지역본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건축사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호남지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광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광주건설기계검사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약현장 안전관리 강화, 소규모 공사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 확대, 건설참여자 안전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활동 강화, 건설기계 관리강화 방안, 관계 법령 및 지침 전파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와 익산지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호남권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호남지사 안전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국토관리청은 이번 간담회가 건설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여 지역의 건설사고를 예방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간담회를 정례화해 건설단체의 의견을 적극 경청할 계획이다.

박형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장은 간담회에서 건설안전 정책의 방향, 건설재해 현황 등에 대해 설

명하고,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협의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영운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장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지역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전시 · 군으로 확대

전북도가 다양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전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전국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도내에는 김제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기존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한정된 제공 서비스와 지역별로 다른 접수 창구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해 제공할 서비스는 9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고, 접수창구도 보건소와 주민센터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맘편한 KTX(특실 할인),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14종과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종)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산부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엽산제나 철분제를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를 발급 받은 후, 정부24 사이트에서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임산부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반려동물과 공립휴양림으로’

도, 공립휴양림 최초 데미샘자연휴양림 내 동반 전용 객실 운영

전북도가 공립자연휴양림 중에는 최초로 데미샘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동반 전용 객실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 산림박물관의 실내·외 모든 시설에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개방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중 산음·검마산·천관산 휴양림 등 3개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립자연휴양림에서는 전북도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도는 반려동물 인구가 전국 1,500만 명에 육박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폭넓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림복지시설에 반려동물 출입을 개방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이 개방되는 데미샘자연휴양림 숙박 객실은 37㎡형 8인용 한옥 수향채 1동을 전용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만 시설 내 동반 입장을 허용키로 했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하는 한편, 향후 데미샘자연휴양림 내에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힐링숲(약 1,500㎡)을 조성하고, 확장 조성 중인 숙박시설 8동 중 2동을 반려동물 전용 객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운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산림복지시설에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함으로써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늘어나는 반려인구 트렌드(흐름)에 맞춘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소규모 자력 개간사업 공고

- 사업목적: 건조성을 위한 개간공사 시행(복분자)
- 사업명: 소규모 자력 개간사업
 - 사업시행자: 최승자
- 위치: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산59번지(192-2번지)의 1필지
- 사업시행면적: 면적 7,050㎡
- 사업 개요(예상 감보율 포함) : 예상감보율 0%
 - 준공후: PE배수로(D=600) L=18.0m, 침사지(7.0X5.0X2.0) 2개소, 침사지(3.0X2.0X2.0) 2개소, 토공수로(B=0.7m) L=200m
- 총사업비: 32,240천원
 - 국고: 0천원
 - 지방비: 0천원
 - 자부담: 32,240천원
- 사업기간: 2021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시행계획 열람 장소: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
 - ※ 의견(이의신청) 제출 기한: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처: 고창군 건설도시과)

2021년 4월 13일 고창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3-9700 www.jmaeil.com